

제3회 UNESCO 등재 2017

한국의 인류무형유산 축제

- 장소 : 서울놀이마당(서울시 송파구)
- 일시 : 2017년 9월 21일(木) ~ 24일(日) 15:00~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주최/주관 :  한국무형유산교육개발원  한국인류무형유산협의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무형유산원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송파구 SONGPA-GU



추진위원 조직도

한국의 인류무형유산축제 추진위원단

자문위원

- 서한범(단국대명예교수)
- 김정수(용인대명예교수)
- 경임순(서울시문화재위원)
- 김세종(인천시문화재위원)
- 방승환(서울시문화재위원)
- 김홍수(한국민속촌농악단장)
- 신만중(풍장21대표)
- 조재연(광주무용협회장)

운영위원

- 김종군(강릉단오제보존회장)
- 정경화(택견보유자)
- 김용(처용무보유자)
- 송순섭(판소리보존회장)
- 문두식(강강술래보존회장)
- 김영기(가곡보유자)
- 김인식(영산재보유자)
- 김윤수(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유자)
- 김대균(줄타기보존회장)
- 박용태(남사당놀이보유자)
- 박용순(매사냥보존회)

한국인류무형유산협의회 · 한국무형유산교육개발원



이정일 사회자

- FM 국악방송/매일생방송 [이정일,김영화의 상암골상사디아]진행
- 현, 서울놀이마당 “전통상설공연” 고정 사회자

프로그램



- 처용무
- 판소리
- 솟대쟁이패



- 매사냥
- 교방 축원무
- 줄타기



- 택견
- 아리랑
- 농악



- 강강술래
- 교방 장구춤
- 서산 벗가릿대농악



인사말

제3회 UNESCO 등재 한국의 인류무형유산 축제를 위대한 백제의 숨결이 서려있는 송파구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9개의 UNESCO 등재 세계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한 전통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중 4일간 만나게 될 아리랑, 판소리, 처용무, 줄타기, 매사냥, 강강술래, 택견, 남사당놀이, 농악, 솟대쟁이패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인류문화의 보고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튼실히 뿌리 내린 나무에 튼실한 결실이 열리고 옛것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익히는 것처럼 전통문화라는 것은 아주 오랜 기나긴 세월을 지나 오늘에 이르는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문화의 근원이자 뿌리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길이 보존하는데 앞장서시는 여러분의 고귀한 뜻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여 우리 것에 대한 인식의 장을 넓히고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축제를 통해 자긍심이 고취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2017. 9. 21.

한국무형유산교육개발원 예술감독 **양근수**



한국무형유산교육개발원장
양근수

축사

먼저 제3회 한국의 인류무형유산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한국무형유산교육개발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형유산은 유형유산과 달리 현 인류의 살아있는 삶을 표현하는 문화유산으로, 인류 공동체의 정체성과 창조성의 원천이며 전 인류가 세계화 속에서 획일화되어가는 상황에서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19종목이나 보유하고 있는 무형유산 선도국으로,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지키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한국의 인류무형유산을 한 자리에서 보고 즐기면서 그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판소리, 강강술래, 처용무, 줄타기, 아리랑, 택견, 농악, 매사냥 등 이번 축제에서 선보일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목들은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전통문화의 예술성과 문화관광 콘텐츠로서의 대중성을 함께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 이번 축제가 우리의 전통예술을 자연스럽게 알리며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지켜나가기 위한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에서도 우리 전통문화와 무형유산의 온전한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3회 한국의 인류무형유산 축제 개최를 축하드리며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 9. 21.

국립무형유산원장 직무대리 **김정남**



국립무형유산원장 직무대리
김정남

축사

제3회 UNESCO 등재「한국의 인류무형유산축제」가 서울놀이마당에서 열리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한국무형유산교육개발원과 한국인류무형유산협의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우리 민족의 전통예술인 판소리, 처용무, 남사당놀이, 줄타기, 강강술래, 택견, 아리랑, 농악, 매사냥, 솟대쟁이패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입니다.

전통문화에는 한 민족의 역사적·문화적 경험이 오롯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발전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우리 전통문화가 오늘날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 한류의 근간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갖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자긍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축제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제문화의 정수인 송파구의 서울놀이마당을 출발점으로 전통 문화의 향기가 되어 널리 퍼져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21.
송파구청장 **박 춘 희**



송파구청장
박 춘 희

처용무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는 2009년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1971년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되었다.

처용무란 처용 가면을 쓰고 추는 춤을 말한다. 궁중무용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 형상의 가면을 쓰고 추는 춤으로, '오방처용무'라고도 한다.

통일신라 헌강왕(재위 875~886) 때 살던 처용이 아내를 범하려던 역신(疫神 : 전염병을 옮기는 신) 앞에서 자신이 지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춰서 귀신을 물리쳤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처용무는 5명이 동서남북과 중앙의 5방향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추는데 동은 파란색, 서는 흰색, 남은 붉은색, 북은 검은색, 중앙은 노란색이다. 춤의 내용은 음양오행설의 기본정신을 기초로 하여 악운을 쫓는 의미가 담겨 있다.

처용탈의 팔죽색이나 복숭아 열매 등은 악귀를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모란꽃은 재물을 불러온다는 부귀화로서 경사로운 일을 맞이하는 진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



- 공연내용 : 북향전배 → 상면상배 → 상배상배 → 삼진제행 → 오방작대 → 오방회무 → 무진무퇴 → 퇴무
- 출연 : 조선조악무보존회 - 보유자 김용 / 최은규(청), 최보근(홍), 박세호(황), 박윤이(흑), 김정희(백)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2003년 UNESCO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판소리는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라는 뜻의 '판'과 '노래'를 뜻하는 '소리'가 합쳐진 말로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북치는 사람)가 음악적 이야기를 엮어가며 연행하는 즉흥 공연이다.

판소리는 관아나 마을 또는 사가(私家)의 잔치에서 불렸다. 판소리를 벌이는 놀이판을 소리판 또는 소리청이라 하였는데, 소리판은 관아·마을·사가의 마당이나 큰 대청마루에서 벌어졌다.

줄타기·땅재주·무동춤과 함께 판놀음으로 벌이기도 하고 또 판소리 홀로 소리판놀음으로 벌이기도 하며 조선 말기에는 방안놀음으로 벌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 정 일 판소리 이수자

- 전, 국립창극단 단원, 정동극장예술단 지도위원
-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국창 故박동진옹 후계자
- 국가무형문화대전(판소리부문) 대상수상

고수 : 풍원현 서울시청소년국악관현악단 단원

숫대쟁이패

사)숫대쟁이패보존회

숫대쟁이패는 신분사회의 해체와 사회적 혼란으로 유랑예인 등 유민의 활동이 활발하던 조선말기 대광대패, 중매구, 사당패, 초란이패, 굿중패, 남사당패 등과 함께 장시와 포(항) 등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였으나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치면서 소멸된, 전통기예연희패로 1930년 이전 소멸되었으나 양근수 예술감독에 의해 2013년 10월 복원재현되었다.

숫대쟁이패의 기예는 신라의 오기와 더불어 산대희의 원형에 접근할 수 있는 원형적 연희로 불화(탱화-감로탱)등에서 많은 흔적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청나라 사신 아극돈(阿克敦)의 봉사도(奉使圖)에 자세히 그려져 있다.

숫대쟁이패는 숫대타기, 쌍줄백이, 살판놀음, 버나놀음, 소고놀음, 열두발놀음 등 전통기예를 위주로 공연되며, 2013년, 2014년 궁중문화축전, 2017년 전통연희축제, 정조대왕행차, 대만 타이페이 드림페스티벌, 캐나다건국 150주년기념 밴쿠버 한인문화의 날에 초대되는 등 왕성한 공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공연내용 : 숫대타기, 살판, 버나, 열두발 등
- 예술감독 : 양근수
- 출연 : 고장옥, 김재현, 최귀환, 하재현, 박세호, 권두희, 오인갑, 최보근, 박희생, 김규동, 안태호, 권태훈, 강지은, 서경화, 이남희, 강혜민, 강지은, 박가담
숫 대 - 박희승, 강성주, 김규일, 이민재
태평소 - 손동주

매사냥

응사 박용순

2010년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매사냥'은 매나 기타 맹금(猛禽)을 길들여서 야생 상태에 있는 사냥감을 잡도록 하는 전통 사냥이다. 본디 매사냥은 식량을 얻는 한 가지 방편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생존 수단보다는 동료애 및 공유(共有)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매사냥은 매를 잡아 길들인 후에 날려서 야생 사냥감을 포획하는 전통으로서, 400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 매사냥은 인간과 조류 사이에 맺어진 가장 오래된 관계 중 하나이다. 매사냥은 아시아의 초원 지대에서 발달하여, 무역과 문화 교류를 통해 다른 나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매와 함께하는 사냥법은 수백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진화하여 왔다.

한국에서의 매사냥은 기원 전후 고조선시대에 만주 동북지방에서 수렵생활을 하던 숙신족(肅慎族)으로부터 이를 습득하였다. 그 후 고구려를 중심으로 삼국시대에 매사냥이 성행하였다. 그런데 이때 이룩한 매사냥 기술은 중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일본에도 백제의 귀화인들이 매사냥을 전승하였다는 기록이 《일본서기(日本書紀)》 등에 보인다. 또한 '해동청(海東靑)'이라는 질이 좋은 사냥용 매는 간도(間島)와 북한지방에서 산출되는데, 중국과 일본에 수출되어 이들 나라로부터 귀히 여겨졌다.

고려시대 충렬왕은 처음으로 매의 사육과 매사냥을 담당하는 응방(鷹坊)이라는 관청을 두었다. 또한 이의 경영을 위해 몽골[蒙古]에서 기술자를 데려오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이 응방제도를 계승하여 궁중에 내응방(內鷹坊)까지 두었다. 연산군 때에는 응방의 편제를 확대하여 좌·우응방을 두고, 여기에 많은 병졸을 배속시켜 전문적으로 매를 잡아오도록 하였다. 매사냥은 대체로 귀족들 사이에서 성행하였으나, 민간에도 확산되어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전국에서 행하여졌다.

매사냥꾼(응사(鷹師) 또는 매꾼)은 자신이 기르는 맹금과 돈독한 유대감 및 정신적 교감을 형성하여야 하며, 매를 기르고 길들이고 다루고 날리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오늘날에는 60여 개국의 지역 공동체에서 노소(老小)를 가리지 않고 매사냥을 즐기고 있다.



• 응사 : 박용순 (대전시 무형문화재 제8호 매사냥 보유자)

정민류 교방축원무

교방(敎坊)은 고려때부터 여악(女樂)을 맡아오던 관청이다. 교방은 고려와 조선조를 거치면서 관에서 예능을 가르친 예기(藝技)들이 추던 춤으로 전통무용가 정민 선생으로 전하여 내려오고 있다

또한 축원무는 대개 외국의 사신들이나 나라에 경사스런 연희가 베풀어질 때 추어졌으며 국태민안과 만백성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춤으로 궁중에서 파생되었으나 민간에서 주로 추어진 창작무의 형태이다.



박 상 희

- 전통예술국제교육원 예술감독
- 2011. 5. 전국 전통공연 예술경연대회 문화부장관상
- 2002. 11. 장흥 전통가무악 전국제전 무용부문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2007. 3 일본황실 초청공연 일본 동경市
- 2006. 10 중국한류축제 특별공연 중국 상하이市
- 2006. 3 미국한인축제 초청공연 미국 뉴욕市
- 2005. 10 뉴질랜드 한인축제 초청공연 뉴질랜드 오클랜드市

줄타기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는 2011년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1976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줄타기는 줄광대가 어릿광대와 함께 익살스러운 재담과 춤, 소리, 아니리를 섞어가며 갖가지 잔노릇(기예)을 벌이는 놀음이다. 마당놀이의 꽃이라 불리는 줄타기는 팔관회(八關會), 구나(驅灘)와 같은 나라의 큰 축제에서 연희되었고 관아(官衙)나 사가(私家)의 연향(宴享)에서도 공연되었으며 민간의 대동제(大同祭), 단오놀이, 파일(八日)놀이 같은 마을의 큰 축제에서도 창우의 가무백희(歌舞百戲)와 함께 공연되었다.

우리나라의 전통줄타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대령광대(待令廣大)계열의 '광대줄타기'이고, 다른 하나는 유랑예인(流浪藝人)계열의 '뜯광대줄타기'이다. '광대줄타기'는 주로 나라의 큰 향연이나 축제에서 연행하였고, '뜯광대줄타기'는 유랑예인 집단인 남사당의 여섯마당 중 한 종목으로 줄타기 명인 박선미가 출연한다.

어름산이 박선미

- 2009 울릉도 눈꽃축제 초청공연
- 2008 서울능동어린이대공원 4달 장기간 공연
- 2007 광주 전국체육대회 오프닝 행사 참여



택견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2011년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택견은 1983년 국가무형문화재 개인종목에 지정되었으나 2013년 7월 단체종목으로 재지정 되었다. 택견은 품밟기라는 독특한 보법에 의하여 능청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쭐거리기도 하며, 발로 차기도 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기도 하는, 서두르지 않고 여유가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무예다.

우리민족은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고조선의 단일민족으로서 용기와 굳셈을 국풍으로 삼을 정도로 무예를 숭상했던 민족이다. 이런 민족의 특성상 택견의 연원은 고조선 때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2천여년 전 삼국 중 가장 무예가 발달되었던 고구려 시대에 와서 오늘날 택견과 같은 무예로 발전된 민족 고유의 무예다. 특히, 고려사를 보면 고려 시대에는 택견의 실력이 무인들의 승진 수단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는 택견이 중국에 들어가 권법이 되었고, 일본에 건너가 유도의 기술이 되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택견의 우수성을 엿볼 수 있다.

택견의 몸놀림은 질박하고 섬세하며 부드러운 손발과 근육의 움직임이 일치하여 자연스럽게 하고 방어할 수 있으며, 다른 무술에서 볼 수 없는 품밟기, 활갯짓, 발질은 상대로 하여금 중심을 흐트러지게 하여 공격의 기세를 둔화 시킬 수 있고, 동작의 흐름을 굵실냄으로써 충격을 완화시켜,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공연내용 : 본대보기 앞의거리 8마당, 옛 택견판(견주기) 실연
- 출연 : 국가이수자 - 신종근 외 5명
국가전수생 및 사범 - 권미영 외 8명



아리랑 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

2012년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이다.

아리랑은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널리 퍼져 있어서 이른바 '독립군아리랑'을 비롯하여 '연변아리랑' 등의 이름이 쓰이고 있을 정도이며, 멀리 소련의 카자흐스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의 아리랑도 전해지고 있다.

오늘날 확인할 수 있는 가요들을 토대로 하여 주로 강원도 일대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정선아리랑', 호남지역의 '진도아리랑', 그리고 경상남도 일원의 '밀양아리랑'을 묶어서 삼대아리랑이라고 부르고 있다.



연 은 지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졸업



송 유 현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졸업

농악

서울교대부초 한빛풍물단

2014년 UNESCO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농악은 풍물이라고도 불리며, 경기충청지역의 윷다리농악, 경상도지역의 영남농악, 전라도지역의 호남우도농악과 좌도농악, 강원도지역의 영동농악 등 지역적 특색에 따라 전국에 걸쳐 다양하게 연주되고 있다. 특히, 오늘 연주될 서울교대부초등학교 한빛풍물단의 윷다리농악은 남사당놀이와 풍물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사통백이, 자육피기, 절구댕이벅구, 용트림 오방진칠채 등 화려한 판굿이 특징적이며, 벅구쟁이들의 돌림벅구, 뒤집기, 솟음벅구, 버나, 열두발 등 개인기량이 뛰어난 농악으로 2003년 창단되어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7년 전주대사습놀이 학생부 장원 등 우수한 연주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 2013년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 풍물놀이 겨루기 대회 '대상' 수상
- 2014년 말레이시아 '세계 민속 음악 페스티벌' 참가
- 2015년 제 16회 전국학생풍물놀이경연대회 '은상'을 수상
- 2016년 미국 '세계 민속 음악 페스티벌' 참가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 풍물놀이 겨루기 대회 '대상' 수상
- 2017년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큰잔치 '동상'
전주대사습놀이 학생부 '장원'

- 지도강사 : 고장옥 선생님
김재현 선생님
박세호 선생님



지도교사 김은희



지도교사 이희승



지도교사 박재열

강강술래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

강강술래는 2009년 UNESCO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었으며,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로 1966년 2월 15일 지정받아 원형보존과 활발한 전승활동을 하고 있다. 강강술래는 전남의 남해안 일대에 널리 분포 전승 되어 있고 지금은 전국 각처에 보급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녀자만의 민속놀이의 하나로 대표적인 절기인 설, 대보름, 단오, 백중, 추석, 9월 중구 밤에 연행되었으며, 특히 팔월 추석날 밤에 대대적으로 마을 부녀자들이 떼를 지어 나와서 노래와 춤으로 원형을 이루면서 뛰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단체 놀이다.

강강술래는 노래, 무용, 음악이 삼위일체의 형태로 이루어진 원시 종합예술로서 춤을 추는 여성들 중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설소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뒷소리를 받는 선후창의 형태로 노래되며, 노랫소리에 맞춰 많은 여성들이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강강술래는 초저녁에 달이 뜰 때 시작하여 달이 서산에 기울 때까지 계속 놀아질 정도로 흥겹고 또한 역동적이다. 설소리를 하는 사람의 노랫가락의 빠르기에 따라 긴강강술래, 중강강술래, 잣은강강술래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노래의 빠르기에 따라 손을 잡고 뛰는 여성들의 발놀림도 빠르기가 달라진다. 또한 이러한 세 가지는 빠르기를 달리하는 것에 반해서 남생이놀이, 고사리꺾기, 청어여기, 기와밟기, 덕석말기, 전쥐새끼놀이, 대문놀이, 가마등밟기, 수건찾기, 봉사놀이 등 다양하며 부대적인 놀이들이 중간중간에 연행된다.

- 공연내용 : 긴강강술래, 중강강술래, 잣은강강술래
- 출연 : 김종심 보유자, 박종숙 보유자, 박용순 보유자, 박부덕 전수조교, 김복자 전수조교, 이원자, 조옥이, 김경숙, 김순복, 권민옥, 양순애, 양향애, 곽순애, 박경순, 이애순, 안영숙, 김순엽, 정순연, 김영애, 한숙자, 안춘자, 이성순, 이유미, 김순양, 박영매, 박세정, 임윤복, 이진영, 고미경, 박순자, 이순덕, 박오심, 함영순, 박춘희



정민류 교방 장구춤

교방이란 조선시대 장막원에 속하였던 좌방과 우방을 합칭하던 말로 이에 속한 기녀들은 예의범절에 관하여 출중한 교육을 받았으며, 나라의 큰 행사에서 가무백희를 벌였다. 이에 무기(舞技)김녹주로부터 김홍주에게 전승되어 내려온 정민류의 춤으로 원로무용가 조용자 선생님도 일본에서 이춤을 재연한바 있다. 열체의 가락을 위주로 몸짓에서의 움직임이 흥이 본이요, 멋의 상징을 특징으로 하는 춤이다.



경 임 순

- 한양대 이학박사
- 서울시·경기도·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
- 한국국악협회 이사
- KBS 대하드라마 무용감독 (대왕의꿈, 근초고왕, 천추태후, 대조영, 불멸의이순신, 해신, 무인시대 등)

서산 벗가릿대 농악

2014년 UNESCO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농악은 주로 다섯 악기(뿃과리, 장구, 북, 징, 소고)를 치며 관악기(태평소) 연주와 함께 소고를 들고 춤을 추는 기능과 잡색 놀이 등의 극적 짜임새를 갖는 공동체적 놀이 형태가 어우러진 형태의 음악을 말한다.

예로부터 마을의 축제나 농사일을 할 때, 또는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연주되었으며, 전국에 걸쳐 연행되는 농악은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각 마을마다 농악대의 구성, 연주 스타일, 리듬, 의상 등에서 차이가 있다. 웃다리농악 계열의 서산 벗가릿대 농악은 2008년 2월 창단하여 현재 15개팀 345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 판굿내용

인사굿 → 입장 → 인사굿 → 돌림벅구 → 당산벌림(1) → 양상 → 허튼상치기 → 깨법구놀이 → 길군악 칠채(오방진) → 당산벌림(2) → 세미괘자놀이 → 소고도둑잡기 → 소고절구대놀이 → 가세치기 → 사통백이 → 원좌우치기 → 줄좌우치기 → 용트름 → 짹짹이 → 타령체 → 굿거리 → 밀법구 → 개인놀이(상쇠놀이, 장구놀이, 소고놀이, 무등놀이, 버나놀이, 열두발놀이) → 인사굿 → 퇴장

연혁

- 2008년 창단, 12월 대동궁 한미당
- 2009년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초청공연
- 2011년 제8회 서산시 농악경연대회 주최·주관
- 2012년 제64회 충남도민체전개막 식전행사
- 2013년 제8회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 축하공연
- 2014년 국화꽃 이야기따라 기획공연
- 2015년 정기발표회
- 2016년 정기발표회
- 2016년 제12회 서산시 농악경연대회 주최·주관





행사장 위치



STAFF

- 총제작 : 경임순
- 총감독 : 양근수
- 연 출 : 김재현
- 조연출 : 김진환, 권태훈, 고장옥, 장순량, 최규환, 김하찬
- 기 획 : 서강석, 변진섭, 남진우, 김동훈, 강지은, 김정희

서울놀이마당 STAFF

- 사 회 : 이정일
- 무대감독 : 양용필
- 기 획 : 김우진